

아르헨티나에서 유성두 강지에 선교사가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두 강지에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의 판데믹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 확진자가 4,000명에서 8,000명까지로 줄어들고 있고 사망자도 200명선으로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곳이다 보니 늘 방역수칙을 지키며 조심하고 있습니다. 백신도 중국과 러시아에서 꾸준히 공급받고 있는 중이고 얼마 전에 저와 강선교사도 1차 접종을 했습니다.

다연이가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었지만 지금은 완쾌되어 학교에 다시 가게 되었고 늘 집에 돌아오면 손발을 씻고 옷을 세탁기에 넣는 습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영상 강의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저녁 2시간씩 신학교 수업을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부터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목회학을 9월까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3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설교학 영상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발표하는 수업이었는데 현재는 영상으로 제가 주도해서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말씀과 기도로 다시 재충전하고 은혜 안에 거하도록 스스로를 때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 강의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며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기는 자들이 되자고 서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2. 교회 지원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열 교회에 학용품을 감사하게 잘 나누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그날 감사 찬양과 예배를 드렸고 전도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빈민 지역과 개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들 위주로 진행했고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진 행사여서 참석하고 준비한 많은 스태프들과 어린이들이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3. 빈민 지원





같이 동역하고 있는 여러 현지 목사들님에게 조연과 정보를 얻어서 아홉 가정에 생활필수품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통로가 되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헌신과 헌금으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잠시 잠간의 단비의 역할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들의 응답이 되는 질그릇 같은 도구로 그저 사용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더욱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아르헨티나 인구의 55%가 빈민이라는 통계가 있었는데 현재는 매체에서 64%라고 합니다. 달러가 없는 나라 경제로 인해 물가 상승은 2, 3달마다 경신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는 분들이 계셔서 늘 그루터기 신앙을 깨닫고는 합니다.

영적 고난의 시기에 더욱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길 소망하고, 그리고 이후에 있을 말씀이 흥왕하였다는 증거가 반드시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영적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시기를 맞이해서, 천국 소망을 가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잘 견디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권세와 능력의 이름을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1. 모든 일에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2.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실수와 잘못을 계속 줄여 나가도록
3. 아르헨티나 기독교인들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이 임하도록

5.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모든 인간관계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6. 신학교 건물을 생명보자기로 덮어주시고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않도록
7. 2021년 선교사역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잘 진행되도록
8. 스페인어를 공부할 때마다 명철함과 기억력들을 부어주시도록
9. 강지애 선교사의 허리 디스크와 갑상선, 손가락 발가락의 관절염이 치료되도록
10. 다연(초4)이 호연(초3)이가 스페인어를 잘 습득하고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11. 다연이 혀의 틱으로 인한 턱과 치아의 변형이 멈추고 잘 교정되도록
12. 호연이의 키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심장이 잘 움직이도록
13. 다연이 호연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잘 자라도록
14. 다연이와 호연이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좋은 친구들이 생기도록

주 소: Aguirre 1034, Villa Crespo, C.A.B.A. Argentina.

전 화: 4772-7215/ 54 9 11 5977 1237

Email : sea39@hanmail.net